

전통 한지 예술적 가치 조명 전시 열린다

전주한지박물관, 17일~10월 25일 오강숙 작가 기획초대전 ‘공존의 미학’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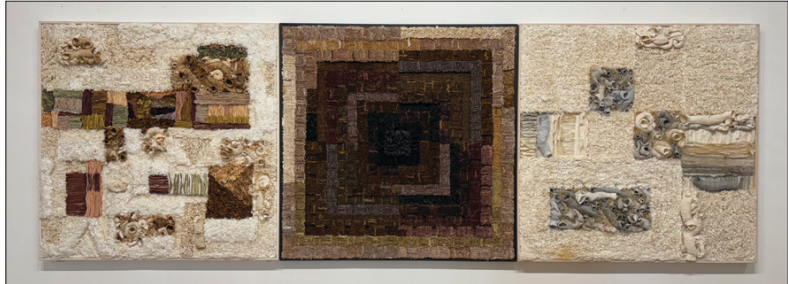
전통 한지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한지박물관은 17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강숙 작가의 기획초대전 ‘공존의 미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 간의 조화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강숙 작가는 “작품은 사람이며 생활이고, 집념이다”라는 철학 아래, 한지를 반복적으로 자르고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형상화해왔다. 특히 원과 사각의 구조 속에 담긴 리듬감과 깊이는 관람객에게 삶과 예술의 본질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통·공존’ 시리즈 가운데 ‘우주’, ‘잔영’, ‘운회’, ‘인연’ 등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한지의 물성과 색깔이 미로처럼 중첩되며, 전통 재료가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단순한 전통 소재를 넘어 한지를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매체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한지



전주한지박물관은 17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강숙 작가의 기획초대전 ‘공존의 미학’을 개최한다.

대전 등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 개 분야에서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한지 조형 분야의 주목받는 인물이다. 또한 예원예술대학교에서 한지공간디자인 전공 객원교수를 역임하는 등 학문과 창작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한지박물관 관계자는 “작가의 집념과 예술혼이 담긴 이번 전시를 통해 한지의 예술적

가치와 소통, 공존의 메시지를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지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일·월요일과 추석 연휴(10월 5~8일)에는 휴관한다.

문의는 전주한지박물관(063-210-8103, www.hanjimuseum.co.kr)으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정기회원전 ‘예술의 숨결, 남원’

내달 12~27일 남원아트센터 지하 전시실서 7개 분과 100여점 작품 소개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회장 김광길)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정기회원전 ‘예술의 숨결, 남원’을 오는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남원아트센터 지하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남원미술협회는 1984년 창립해 1989년 공식 인준을 받은 뒤 현재까지 남원 미술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며, 전시 개막식은 10월 17일 오후 4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협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세대와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전시에는 회화·한국화·문인화·조소·공예·서예·캘리그래피 등 7개 분과에서 1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되며, 각 작가는 남원의 풍경과 일상, 삶의 이야기를 저마다의 시선으로 풀어내어 예향 남원의 숨결을 생생하게 전한다.

김광길 지부장(남원국제도자연구센터 이사장)은 “예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힘을 발휘한다”며 “이번 전시가 남원 예술인과 시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협회는 세대 간 화합과 창작의 열정을 이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광길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장 작품 달항아리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그리스 레벤테코’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이 오는 26일과 27일 총 3회에 걸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 초청공연을 이어왔다. 올해는 그리스의 대표적 민

중음악인 ‘레벤테코(Rebetiko)’를 소개한다.

공연에서는 레벤테코 특유의 정서와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 민속음악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그리스의 대표적 전통 현악기인 부주키 연주로 정령이 난 그리고리오스 바실라스(Grigoris Vasilas), 맑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스타브롤라 마놀로풀루(Stavroula Manolopoulou) 등 8명의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악기와 춤, 노래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7일 오후 4시 30분에는 열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소규모 발표회(미니세미나)도 열린다. 아테네대학교 교수이자 세계적 민속음악학자이인 람프로스 리아바스(Lampros Liavas)가 강연에 나서 레벤테코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공연과 발표회(세미나)는 모두 무료며, 예약은 17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회당 300명(1인당 2매)씩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4)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 오상근 -

일부러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올렸고 팔짱을 끼며 상반신을 의자 뒤로 기댔다. 의자를 비워줄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명색이 건달인데 양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식은 여전히 아직은 건달이다.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예의나 차리고 자리나 양보하는 멍청이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으므로 동식을 쳐다보는 사내가 여전히 동식을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몹시 관자놀이가 따가웠다.

이럴 때는 있는 대로 인상을 구기고 천천히 얼굴을 돌려 쳐다보고 있는 사내의 눈을 찌를 듯 송곳눈을 뜨고 쬼쬼바야 한다. 건달은 절대 일반인과 눈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사내를 흘려보는 대신 동식은 열린 몸을 일으켰고 의자를 들어 사내에게 권하기까지 했다. 이곳에서는 건달이고 싶지 않으니까.

“혹시…….”

동식이 의자를 양보했는데도 사내는 의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동식을 뚫어 쳐다보며 무슨 말인가를 이어가려 했는데 조금 놀란 눈처럼 보이기도 했다.

동식도 그런 사내를 쳐다봤다. 건달의 눈에서 최대한 힘을 빼고 일반인의 평범한 눈을 하려고 애썼다.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강남준이라고…….”

강남준? 누구지? 동식은 열린 머리를 굴려 조직의 선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알게 된 다른 지역 건달들의 이름 속에서 강남준을 찾았지만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성명이었다.

동식은 사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여전히 일반인의 눈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사내를 쳐다봤다. 사내가 뭔가 착각한 것인가. 사내는 강남준을 말하면 동식이 뭔가 반응을 보일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동식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자 조금 놀란 눈을 잠재웠다.

“혹시 그 사람을…… 아시요?”

동식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말 모르시요?”



사내는 재차 확인하려 들었다. 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러는 거야? 자세히 보니 나이가 칠십 가까이 되는 되어 보이는데 노망이 들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내는 열린 굳어 있던 표정을 풀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 말이에요, 허허허.”

거 참, 싱거운 양반이네. 강남준이라는 자가 누구이기에 나와 닮았다고 하는 건가.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사내에게 의자를 양보했다. 사내는 의자에 앉으며 동식에 게도 앉으라고 손짓을 하였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요?”

왜 나이까지 물어보는 것일까. 동식은 서른다섯이라고 말했다.

“강남준은 내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다행히 너무 닮아서 그 친구가 아닌가 순간 착각했소.”

“무장에 사시는 건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때 치복을 입은 사람이 사내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데려가 버렸다.

사내가 무장능악단의 책임자인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이후 동식과 더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강남준이라는 사람이 동식과 닮았다는 말이 동식은 신경 쓰였다. 사내는 옆 사람에게 아가 그 사내의 이름을 물어봤다.

“강정근 씨요. 우리 능악단 상쇠요.”

다음날은 역시 호암마을로 봉사활동을 갔다. 동식은 차를 몰고 가면서 실실 웃음이 나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나 싶은 것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동식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중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